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치수 136p, 중고선가치수 132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36p, 중고선가치수는 132p를 기록함. 지난주 현대삼호중공업이 15.8만DWT급 수에즈막스탱커 3척을 수주했음. 현대미포조선이 3만CBM급 LNG선 1척과 5만DWT급 MR탱커 4척, 4만CBM급 MGC 1척을 수주했음. 현대중공업이 20만CBM급 LNG선 4척과 8.6만CBM급 VLGC 2척을 수주했음. 삼성중공업이 17.4만CBM급 LNG선 2척과 13,1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음. 대우조선해양이 현대LNG해운으로부터 17.4만CBM급 LNG선 1척을 수주했음. (Clarksons)

Capesize bulker rates down nearly 20% this week but outlook looks positive

Capesize 벌크선의 스팟운임이 지난주 -18.3%하락하며 일일 20,933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BDI(Baltic Dry Index)는 -6.1%하락하며 2,438p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이번 운임하락은 Capesize 벌크선 운임선도거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되며 벌크 시장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Sovcomflot ties up long-term deals on LNG-fuelled tanker duo with Sakhalin-2

러시아 선사 Sovcomflot(SCF Group)가 러시아 Sakhalin-2 프로젝트와 LNG추진 아프라막스 탱커 2척에 대한 장기 용선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용선주에게 인도되기 전 LNG병커링 시스템 등에 대한 업그레이드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도됨. (TradeWinds)

Zombie boxships come back to life with rates of \$100,000 per day

컨테이너선 스팟 용선료가 파나마급 기준으로 일일 10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원래라면 폐선으로 이동할 노후 컨테이너선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보도됨. 이러한 노후 파나마급 컨테이너선들은 단기간, 예를들어 약 80일간의 화물운송계약을 위해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방법 등으로 시장에 동원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일본 칸다조선, 타월 던졌다

일본 히로시마 소재의 칸다조선이 2022년 1월 이후에는 신조선 건조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됨. 이 조선소는 앞으로 선박 수리업에만 주력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칸타는 지난 1937년 페리선 건조사로 시작하여, 벌크선, 로로선 등으로 건조 선종을 늘려왔으나 최근 팬데믹 영향으로 신조선을 수주하지 못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한화시스템, 3200억 근접방어무기체계 수주 따낼까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국산화 사업 참가 신청 기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함정 전투체계 개발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한화시스템의 수주가능성이 주목된다고 보도됨. 약 32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CIWS-II 개발 사업은 2030년 12월에 개발시제를 포함해 양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됨. (아시아타임즈)